

지표수[초평천]에서 방사성요오드[131I]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감시센터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울진군 내 대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표수를 채취분석하여 방사성요오드의 환경 유입원을 확인하고, 울진군 내 주요 지표수에 대한 환경방사능 기초 데이터 확보 및 방사능 농도 준위를 평가하기 위해 환경방사능 분석을 수행하였다.

□ 주민 공동 시료채취 및 분석

감시기구는 2007년부터 환경방사능 측정, 조사, 분석 및 평가 등의 수행에 따른 원전 주변지역 주민과의 환경시료 채취를 공동 수행하여 감시센터의 환경방사능 분석 결과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환경방사선/능 감시자로서의 대 주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공동 시료채취는 매 분기별로 시행하며 지역에서 생산 소비되는 농·수산물 등을 통해 감마동위원소(γ), 전베타, 삼중수소방사능[3H]를 분석,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 한울원전 주변 환경방사능 조사 주민설명회[경북대 설명회] 대응

한울원자력본부는 관련 법규에 의해 원전 주변 주민의 방사선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감시기구는 사업자의 용역 수행 기관[경북대 방사선과학연구소]에서 매년 실시하는 '한울원전 주변 환경방사능 조사 및 평가' 설명회에 참석하여 지역의 환경방사능 분석기관으로서 용역 수행기관의 환경방사능 분석자료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사항을 요구하는 등 한울원전 가동에 따른 주변의 환경방사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제3절 한울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갑상선암 공동소송

1.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갑상선암 공동소송 제기 배경

2012년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전주변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진섭 씨 가족이 부산시 소재 법률사무소 민심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소송이 접수되면서 처음으로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등 암 발병 관련 법적 소송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이진섭씨 가족은 본인은 직장암을, 부인은 갑상선암, 장모는 위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의 아들[이균도]은 발달장애를 지니고 있었다.

2014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1심 재판부[판사 최호식·이영림·김용환]는 이진섭씨 부인의

갑상선암에 대해 한수원의 손해배상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으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당시 한수원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014년 11월경에 부산환경운동연합과 경주환경운동연합, 경북 울진과 전남 영광지역의 핵발전소주변지역갑상선암대책위가 결성돼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공동소송인 공개 모집 운동이 전개되면서 원전주변지역 주민 갑상선암 공동소송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부산·경주·울진·영광 등 4개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 298명이 1차로 공동소송에 참가하고 2015년 2월 추가 모집을 전개해 248명이 참여했다. 당시 울진지역에서는 94명이 참여했다.

2015년 2월25일 공동소송인단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민심[대표변호사 변영철]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갑상선암 집단손해배상 공동소송 소장을 545명 명의로 제출했다.

2. 울진지역 한울원전주변지역 주민 갑상선암 공동소송 전개

2015년 1월 장시원 군의원[울진읍]과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싶은 울진사람들[이하 핵안사]이 공동으로 한울원전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갑상선암 피해 공동소송인단을 공개 모집하는 등 전국 4개 원전지역과 함께 갑상선암 피해 소송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핵안사 등이 제시한 공동소송인단 모집 기준은 △ 패소 시 법률비용 부담 기능한 자 △ 한울원전 반경 10km 이내 해당지역[북면·죽변·울진읍]에서 5년 이상 거주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자 △ 갑상선암 피해자 중 주거지는 해당지역 외이나 해당지역 내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이다.

2015년 6월 1일, 공동소송을 주도한 장시원 군의원과 핵안사는 죽변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공동소송 재판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변영철 대표변호사로부터 재판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당시 재판과정에서 김영희 변호사는 해당 소송 관련 무료변론을 해 공동소송인단에게 고무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어 같은 해 6월1일 울진군민 갑상선암 공동소송 모임이 공식적으로 발족하면서 대응 조직이 구체화되면서 울진지역은 타 원전 소재 지역에 비해 조직적인 대응체계를 갖추었다.

당시 모임의 대표는 전간술[죽변면]씨가, 총무에는 조춘식씨가 선임됐다.

공동소송모임은 2015년 11월5일 울진군종합복지회관에서 최초 갑상선암 법적 투쟁을 개시한 이진섭씨를 초빙해 강연회를 열고 이듬해인 2016년 4월16일 죽변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한울원전 주변주민갑상선암 역학조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당시 역학조사 설명회에는 소송대리인인 변영철 변호사가 해당 소송 재판 진행과정을 설

명하고 김익중 교수[동국대 의대]가 탈핵 강연을 가졌다.

또 산업보건 분야 권위자로 평가받는 백도명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가 이날 역학조사 설명회에 참석해 역학조사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공동소송모임은 2020년 11월13일 국회에서 열린 원전주변지역 피해주민 증언대회에 참여해 울진군민 147명이 진행하고 있는 갑상선암 공동소송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등의 적극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공동모임의 전간술 대표와 장시원 군의원이 참석했다.

울진지역 갑상선암 공동 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울진지역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원전 가동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 양상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 등 생활환경 저해 요소에 대해 역학조사 등을 통한 사실 규명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 평가이다.

제4절 원자력산업과 지역사회의 변화¹⁰⁸

1. 울진지역 변화의 원동력, 원자력발전소

울진지역이 원자력발전소 부지로 확정되면서 울진지역에는 급격한 변화의 희오리가 몰아친다. 당시 변화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급속하게 진행됐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원전부지로 확정된 북면과 인근 지역인 죽변면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원전 건설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먼저 주민들의 전통적 생산방식을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특히 이 같은 생산방식의 변화는 죽변항을 중심으로 발전한 어촌마을인 죽변면보다 농업 중심이었던 북면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변화의 양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먼저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농사행위로만 가계를 꾸려오던 북면·죽변면 지역의 농민들에게 농외수입의 기회를 제공했다. 농사만으로 가계를 꾸려온 농민들에게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상시적으로 현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종전의 경우, 농가가 현금을 만질 기회는 추곡 수매 때나, 혹은 토지나 키우던 소를 팔아야만 가능했던 일이었다.

농가가 상시로 현금을 만질 수 있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먼저 임노동

108. 원자력발전소와 지역사회 변화는 1979년 이후 1980년대 이르기까지 울진지역에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소라는 대형 국책사업이 시행되면서 일어나는 사회, 경제적 변화양상에 초점을 맞춰 기술한다. 이 기간 사회정치적 갈등 양상은 앞의 '제1절 원자력산업과 반핵운동'편 참조